

호남고속철 2단계 송정~함평 고막원 연내 착공

기존 철로 고속화 ... 내년 예산 1460억 확정

고막원~목포 구간도 내년 착공 기대

무안공항 경우 문제로 착공이 늦어졌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역~목포) 건설사업이 조만간 착공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송정~함평 고막원(26.4km) 기존 철로를 고속화하는 궤도·전기공사를 연내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도목·건축공사도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예산심의를 이와 관련한 내년 사업비가 정부안(75억원)보다 1385억

원 늘어난 14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부대 의견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국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명시하면서 표류하던 고막원~목포 구간 건설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경우 노선 확정까지 바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어서는 긍정적 신호다. 그동안 기재부는 광주~

목포 66.8km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 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km를 신설하는 안을, 전남도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구간의 기존 철로 33.7km를 고속화하고 43.9km에 신선을 깔아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겠다는 안을 고집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들어가 전남도와 이견이 노출됐다. 전남도는 국회 부대 의견이 나오면서 무안공항을 지선 형태로 하지 않고 전체 노선이 공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기재부의 KDI 용역을 조속히

마치고 노선이 확정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기본계획 확정,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안에 고막원~목포 구간도 착공해 2022년에는 완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2020년 흑산공항 개항, 광주·무안공항 통합에 대비해 2020년까지는 무안공항 경우 노선 완공이 필요하다"며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소 지연된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남은 구간도 신속히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전남도 SOC예산 첫 1조 넘었다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순조

매년 증가 불구 아직 미흡

전남도의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국고예산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4년 전인 2013년 7571억원에 비하면 4000억원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 예산의 미미한 투자로 완공 시기마저 불투명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3대 SOC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전남도 SOC 사업 국고예산액이 1조1672억원으로 이는 2016년 예산액(8307억원)의 1.4배로 개칭 이래 SOC 예산 확보에 전례 없는 성과다.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2017년 착공 예정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전체 사업비 1조7990억원)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무안공항 경우 시 2조4731억원)에 각각 1449억원과 146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광주시~나주혁신도시~남해

안관광벨트를 잇는 중남부지역 개발과 교류 증진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보성~목포 간 남해안철도 사업(1조3886억원)은 올해(500억원)보다 4배 이상 증액된 2211억원이 반영돼 2020년 완공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권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호남 간 동서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의 최근 5년간 SOC 예산은 지난 2013년 7571억원, 2014년 7513억원, 2015년 8544억원, 2016년 8307억원, 2017년 1조1672억원 등 모두 4조3607억원이다.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SOC 사업 예산은 지역건설산업과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응노력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식품부 농산식품 평가

전남도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산식품 추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쌀 적정생산에 필요한 비 재배면적 확보, 동계작물 확대 재배, 지역증진 등 5개 분야에 대한 노력도 등이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남도가 우수상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남군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 들녘경영체 부문에서는 장성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농연장성농협이 전국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쌀 수급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올해 ha당 300만원을 지원 하는 쌀 대체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3억원 등 9억6000만원을 투입했다. 도시·군 및 농어촌공사, 종자원,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 쌀 안정생산 유도과 맥류 확대 재배 등 농산식품을 적극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창출 토코쇼

2016 광주형 일자리 컨퍼런스가 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문국현(오른쪽)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와 박병규 광주시 사회추진단장이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코쇼를 벌이고 있다.

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개혁 ▲박태주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범협의회 위원장-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소통과 통합, 연대와 혁신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마련을 마련해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다시 문 대표를 모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살을 응원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산·한·민·관·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이 광주형일자리 주요 의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적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강한 기업의 비결은 사람 존중"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광주형 일자리 컨퍼런스'서 주장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지름길은 결국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한킴벌리 신화'의 주인공인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는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광주형 일자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강한 기업의 비결은 사람 존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유한킴벌리는 노조와 정보 공유, 평생학습, 투명경영으로 사람 존중 경영을 실현했다"며 "직원들이 즐겁게 일

하면서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 강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를 이끌며 파격적인 4일 근무제와 300시간의 양질의 교육과정, 상향식 경영 철학, 8개 사업분야 시장점유율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문 대표는 "광주형일자리 듣는 순간 독일의 초일류 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 떠올랐다"며 "광주형일자리 모델에 평생학습을 더한다면 경쟁력 높은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변혁의 시대, 지속적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공유 가치 창조경영, 사람 중심 기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이야기했다.

문 대표의 특강에 이어, 박해광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장의 '광주형일자리란 무엇인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자동차산업 국내외 임금체계 검토와 대안적 임금체계의 구상 ▲박준식 한

전남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호응

내년 1012마을로 확대

전남도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대상지를 올해 759개 마을에서 내년 1012개 마을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 농민 가사부담을 줄이고 마을공동체를 위한 이 사업이 크게 호응받고있어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한 759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매우 만족 38%, 만족 4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매우 필요 50%, 필요 42%)가 공감하고, 공동급식이 주민 유대 강화(49%),

가사부담 경감(25%), 농업 생산성 향상(20%)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급식을 이용한 인원은 총 1만5180명이며, 이 중 여성이 9279명(61%), 남성이 5901명(39%)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411명(62%)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 올해 전남도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순천, 나주, 고흥, 영암, 강진 등 19개 시·군 759개 마을을 대상으로 15억1800만원이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완도군이 추가돼 20개 시·군 1012개 마을에 20억2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 중소상인, 남악신도시 롯데마트 허가 반발

대책위, 감사원에 감사 청구

전남도청이 들어선 무안 남악신도시 대형마트 개점 허가와 관련, 인접한 목포 중소상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목포 지역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남악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무안군의 복합쇼핑몰인·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건축 허가 당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행정

절차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건축물 사용 승인 때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 여부 확인을 건축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무안군이 이를 무시하고 하수처리장 공사 도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내년 말에나 끝날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하수처리 계획 보완책이 충분하 마련됐다고 판단해 최근 건축물 사용을 승인해 범민의 가져본 인용 여부가 주목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서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음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과금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기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역시 계약서(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현금/카드/신용카드,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